

[카드 뉴스] 핀테크×빅테크기업 금융시장 진출, 새로운 서비스가 다른 시장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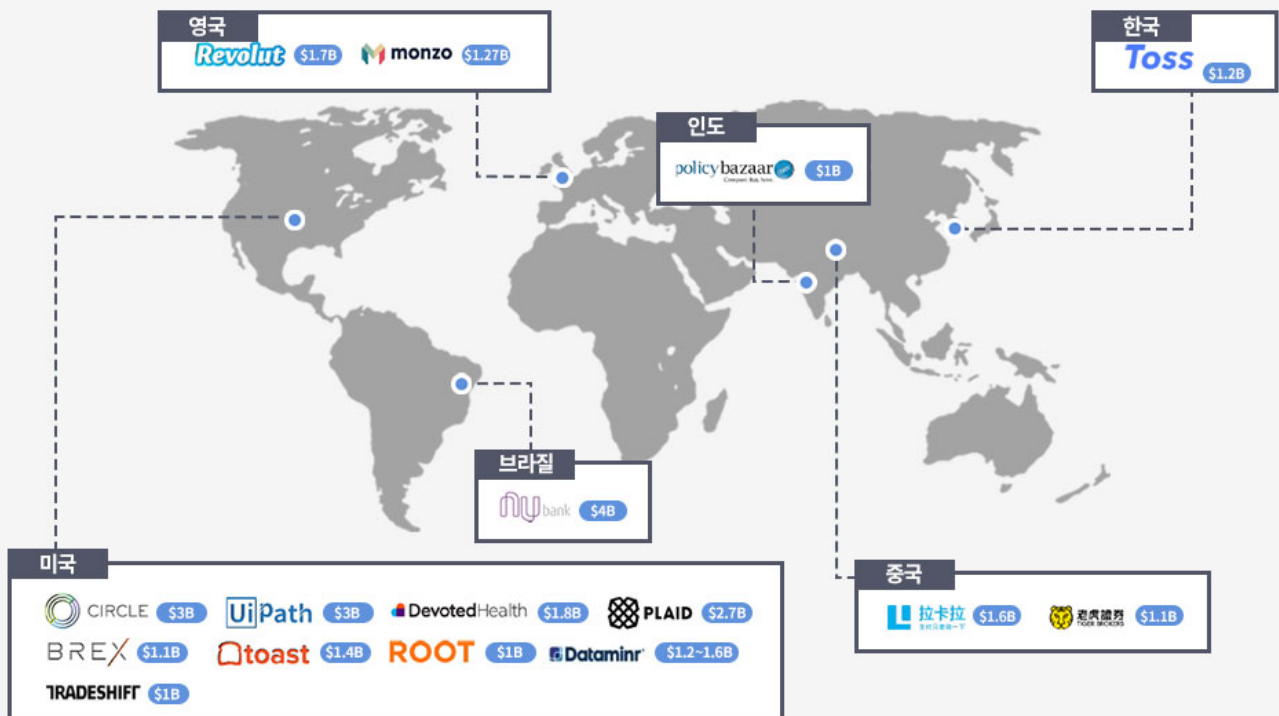
새로운 핀테크·빅테크기업 금융서비스, 금융기관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핀테크·빅테크기업 금융시장 진출

중국 루팍스, 미국 스트라이프 등 글로벌 핀테크기업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금융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핀테크기업 토스, 빅테크기업 카카오, 네이버가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핀테크·빅테크기업 시장 본격 진입



<출처: Pulse of Fintech 2018 ('19.1월, KPMG)>

국내 핀테크·빅테크기업 성공 사례

국내 핀테크·빅테크기업 성공 사례로는 비바리퍼블리카 토스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15년부터 금융서비스 플랫폼 토스 운영을 시작해 최근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카카오톡도 은행권 전체 중금리대출 총액 60%에 준하는 대출액을 달성했습니다.

토스와 카카오뱅크 성장



- 간편송금 서비스 플랫폼으로 시작
-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만으로 송금 가능
- 금융상품 가입, 투자, 대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
- KEB하나은행과 외화 간편 환전서비스 개발
- 비바리퍼블리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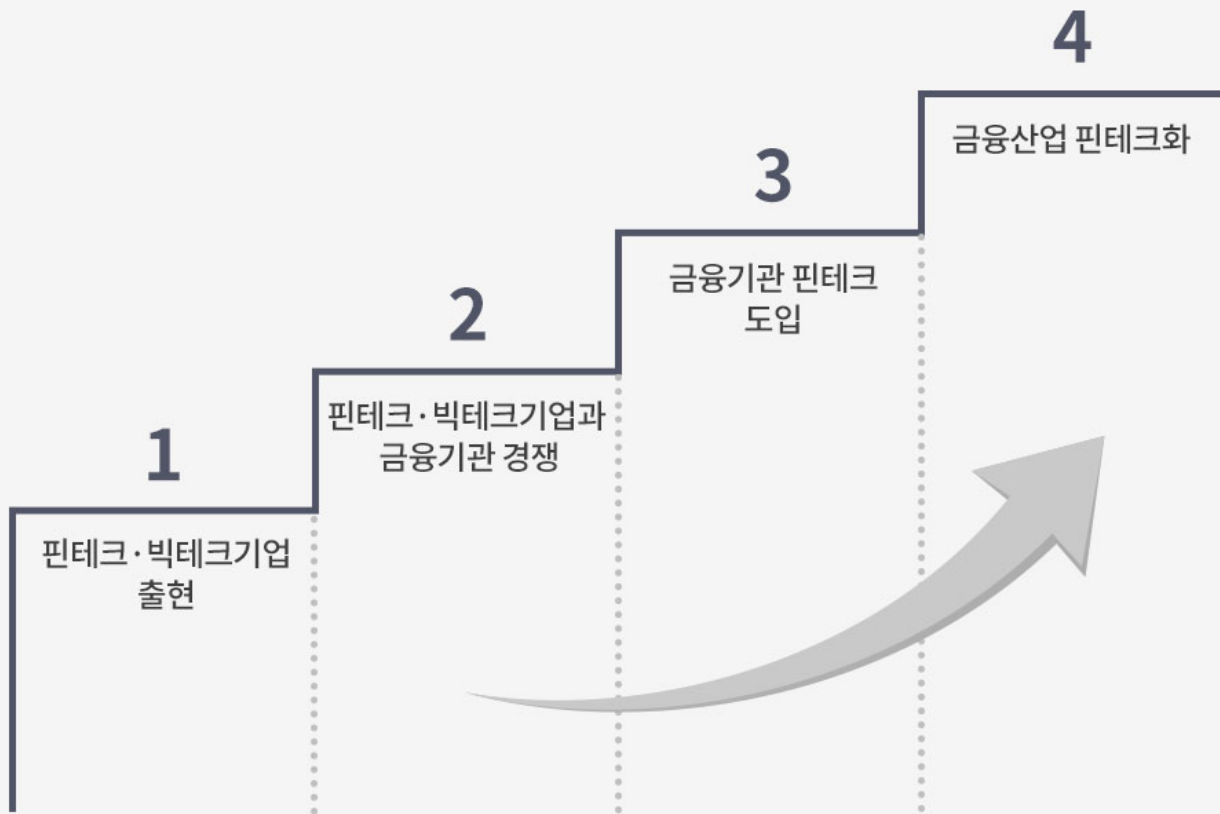
- SNS 메신저 플랫폼 카카오톡을 금융서비스에 활용
- 비대면으로 모든 금융서비스 처리 가능
- 낮은 수수료와 대출 금리, 높은 예금 금리로 차별화
- 2019년 1월 21일부터 8월 말까지 5,737억원 규모 중금리 대출 공급
(2018년 은행권 전체 공급 중금리대출의 약 60%에 이르는 수준)

빅테크기업과 은행의 SWOT분석

빅테크기업	SWOT 분석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고객수와 데이터 집적도 • 비금융분야에서의 거대 네트워크 구축과 자본력 	S(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높은 시장지배력과 고객 신뢰도 • 다방면에서의 위기관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과 단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의 우선도가 낮음 •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 	W(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수익 비중이 높은 수익구조 • 비금융분야의 데이터수집량이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혁신 역량 • 신흥국의 금융서비스 수요 증가 	O(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 인포메이션을 활용한 수익모델 •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독점 방지, 정보보호에 대한 전세계적인 규제 도입 추진 • 비슷한 사업모델을 가진 빅테크와의 경쟁구도 형성 	T(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금융서비스 경쟁자의 등장 • 은행 고유의 역할 축소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

금융시장 단계별 변화



금융서비스 진화

거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핀테크·빅테크기업 금융서비스와 금융기관 금융서비스, 현재 금융서비스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진화 방향

진화 방향	내용	대표 사례
수수료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기술을 활용해 인력 개입 최소화 - 국제표준화 거래플랫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랜스퍼와이즈 해외송금 수수료: 기존 금융기관 1/10 - 페이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금융기관 4/10
간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인인증서와 복잡한 인증 절차 생략 - ID와 비밀번호로 모든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페이의 지문인식 결제
보안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30개국 100여 개 은행들의 해킹 피해 규모는 10억달러 - 세계 각국 금융기관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 기능 강화 - 블록체인기반 인증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글로벌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사례

기업	내용
Goldman sachs	- 핀테크기업 Context Relevant에 1,350만달러 투자 발표 (BOA·메릴린치 공동, 2014년 9월) -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년 3월)
Société Générale	- 실시간 banking시스템, 결제, 개인화 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BaaS(Banking as a Service) 플랫폼 회사 Treezor 인수(2018년 9월)
스페인 BBVA	-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 분석업체 Madiva(2014년 12월), UX 및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 인수(2015년 4월)
캐나다 TD Bank	-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 6 인수(2018년 1월)
미쯔비시-도쿄 UFJ은행	-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분석에 특화된 기업인 Xenodata Lab에 지분 참여(2017년 2월)

<출처: 금융감독원,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핀테크기업과 협력 강화하는 금융기관

구분	주요사례
신한금융	‘신한 퓨처스랩’ 통해 P2P업체 어니스트 펀드 발굴·지원 및 P2P업체 15개사 자금 관리
KB금융	‘KB스타터스’ 프로그램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기차 등 다양한 비금융 스타트업 지원
하나금융	‘원큐 랩’에서 인공지능 자산관리, 상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우리은행	위비 핀테크랩 통해 예비창업자 창업, 창업 초기 기업 집중 지원
농협금융	오픈 API 활용. P2P업체 15개사 자금 관리 은행권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 운영
기업은행	‘IBK 드림랩’ 1기로 육성한 업체 ‘와디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로 자리잡아

금융의 언번들링(unbundling)



<출처: Spark Lab(2016)>

-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